

■ 서평

## 제주 무속연구의 현재와 미래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집문당, 2002)

문 무 병\*

제주도에 태어나 제주대학에서 국문과를 다녔고, 그 권위주의적이고 까다롭게 구는 교수님들 덕분에 10년 만에 어렵고 힘들게 제주대학을 졸업하였다. 내가 1970년 한양대학 건축과를 다니다 다시 제주대학 국문과로 귀찮은 예비고사를 치르면서까지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문학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대학에 와서는 문학보다 연극에 더 빠졌고, 연극 연출을 한답시고 강의시간에 죽 먹듯 빠지다 보니, 학점이 핑크 나 결국 제주대학을 10년 만에 졸업하는 불명예를 지금까지 혹처럼 붙여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1972년 재경서울대학학우회 강창일(현 배재대 교수) 일행 등과 함께 현용준 교수님의 조사 방법에 대한 지도를 받고, 한림읍 금악리, 명월리, 한경면 낙천리, 조수리, 저지리 등을 다니며 처음으로 마을 신당 '할망당 민속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한 대학생들에게는 녹음기가 없어서 노트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다. 마을이 어떻게 설촌되었으며, 설촌 조상이 당신으로 이 마을에 좌정했다는 당본풀이, 신들의 내력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때였고, 그로부터 나는 줄곧 신당과 굿, 무속 연구에 빠져들게 되었다. 1973년 군대에 갔다가 제대한 후 재적 당했던 학교로 겨우 복학했을 때가 1977년이었고, 다시 학점을 따며 1980년에야 가을에야 겨우 졸업하여 제주중학교 선생이 되었다.

\*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

언 땅에 민주화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1980년을 피로 물들인 광주민중항쟁이 있었고, 그 살벌한 시기에 나는 제주에서 새로운 마당극 운동을 시작했다. 때가 좋지 않았지만, 제주에서의 마당극 운동은 민주화운동이며 민중문화운동이었다. 처음으로 마당극 《땅풀이》를 공연했다. 마당극 《땅풀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주도의 땅 85%가 재벌들에게 넘어가 제주사람들은 '자기 땅에 유배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제주 사람들에게 각성시키는 작품이었으며, 이 작품은 제주의 놀이굿 〈영감놀이〉 〈세경놀이〉 〈전상놀이〉 등을 네 마당으로 구성한 창작 마당굿이었다. 이것이 내가 처음 연출한 마당극 《땅풀이》이다. 이런 마당굿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신당조사 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제주도의 굿을 좀 더 공부하겠다고 굿판을 따라다니다 보니, 나도 제법 스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은 제자답게 굿에 대해 일가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굿에서 새로운 양식의 민중극을 개발하여, 제주 마당굿 양식으로 발전시켰으며, 1983년 서울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마당굿 《좁너풀이》를 공연하게 되었고, 제주의 마당극은 80년대 서울로 입성하여 70년대 새로운 탈춤부흥운동으로 시작한 문화운동의 중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다. 굿으로 하는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란 말이 생겨났으며, 이는 제주 마당굿의 영향이 그만큼 컸던 것이었다. 나의 굿 공부는 학계보다 연극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친 지역문화운동이며 새로운 굿운동이었다. 운동으로써의 싸움굿을 거창하게 주장하며, 나는 굿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애 썼고, 그래서 본풀이처럼 서사 형식으로 창작 굿시 "날랑 죽건 닥밭에 묻엉..."이란 장시를 썼다. 때문에 나는 제주학, 이를 좁혀서 제주민속연구, 그 가운데 제주도 무속연구를 논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그 당시 민속학자나 동학들과는 달랐다. 나는 처음에 학문하기 위해 굿을 공부하지는 않았다.

민속학이 보수적인 학문이라면 그것은 과거의 학이며, 진보적인 학문이라면 현재의 학이다. 제주학의 시작을 일제시대 일인학자부터 시작되

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친일 제국주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해방 후 미국에서 공부한 인류학자들의 손에 재단된다면 친미 제국주의 학문에서 일탈할 수가 없다. 해방 후 민속학과 인류학의 공존과 대립은 일본에서 공부한 학자와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의 대립이며, 그 방법론의 혼란도 민속학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해방 후 민속학은 주로 국문학자들이 연구했고, 그 대상은 문학이며, 탈춤의 대본, 민요의 노랫말, 굿의 무가와 신화, 전설, 민담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은 서양의 시각으로 원주민을 보듯 객관적 관찰이란 방법론으로 시골에 가서 단골이나 무당, 아니면 제주의 해녀들을 연구한다며 ‘우스꽝스러운 문화현상’ 들을 연구했다. 현지 주민들에게 학자들이 행한 학문하는 태도나 방법에 있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부문이 많았던 것 같다. 제주 민속학 연구도 그러한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길고 긴 권위주의 시대에 대학 사회가 지배해 온 연구자의 연구업적은 문화권력의 일부였고 기득권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학자는 삼무정신을 만들고, 조냥정신을 만들고, 온갖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생산자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순수란 이름의 학문연구가 오히려 학문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의 무속 연구를 반성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한다.

제주도의 무속연구는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 세 분이 주요 업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릴 테이프 녹음기, 그리고 소형 녹음기가 유통되던 1960~1980년대였으며, 이들 모두 국문학자였고, 연구 대상이 ‘본풀이’ 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신화가 집대성 될 수 있었다. 귀로 들어서 노트에 옮기는 데서부터 한 걸음 나아가 녹음기의 발달은 녹음하여 반복으로 청취함으로써 현지의 구연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녹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녹음은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채록본에서 현장론적 분위기의 기록까지는 못 미치고 있지만, 기록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었다. 현용준의 1980년의 『제주무속 자료사전』은 그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채록 정리된 것으로 제주말의

고어랄 수 있는 무속어들을 그 당시의 구연방식대로 원음대로 기록되어 있어, 최근 급속히 변해 가는 무가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과 규범으로써의 역할을 해 준다. 필자도 언제나 녹취를 한 자료를 검토할 때는 자료사전의 표기법이나, 어의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없는 말들도 무수히 발견되지만, 방언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제주 무속어 사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굿의 제차를 자세히 기록하지 못했거나, 앞의 연행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전과 같음' 식으로 기록해 버린 점이다. 녹음기로 움직이고 스쳐 지나가는 온갖 연행 행위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던 점, 비디오 촬영으로 채록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길고 장황하게 늘어놓은 사실들, 심방이 제차가 바뀔 때마다 하게 되는 전체굿에서 현재 굿의 진행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들어가는 말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료사전은 그러한 사실을 다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굿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료사전은 제상차림이나, 무복, 기메·전지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글들이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에 많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용준의 무속연구는 장주근, 진성기 씨씨의 무가의 사실, 본풀이 등 문학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굿의 의례적인 측면에서 형식과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보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영상 채록의 시대가 아니었던 탓에, 그의 채록에서 의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썼던 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굿을 음악적 측면, 무용적 측면, 놀이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어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 무당굿 개관”의 굿의 요소 중 ‘행동적 요소’에서 베포도업춤, 도랑춤, 신청계춤, 향로춤, 주잔춤, 떡춤, 할망춤, 칼춤, 질치기춤 등 굿에 나오는 춤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동영상 기록이 가능한 지금에 와서는 이 춤들을 춤사위나 무보로 기록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제주도의 무속춤 연구

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춤사위에 따른 연물가락도 악보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극성이 짙은 <도지마을굿> <수룩침> <악심꽃꺾음> <꽃탐> <전상놀이> <세경놀이> <강태공서목시> <영감놀이> <칠성새남> <불찍앗음> <구삼승냄> 등 놀이굿들을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 시대의 채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 춤, 연극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려는 노력이 후학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책의 머릿글에서 그는 저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필자가 무속과 신화에 관심을 가진지도 어언 4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신화에 관심을 두었다. 대학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한 필자로서는 제주도의 굿에서 무속신화, 곧 본풀이를 노래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고대 서사문학의 잔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본풀이를 조사하는 데 얼마만큼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후 깨달은 것은 무슨 본풀이가 굿의 어느 부분에 어떤 기능으로 불리는가를 알아야 학술적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굿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사·기술해야겠다는 생각에 굿 내지 무속으로 시야를 넓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가 진척되면서 굿의 구성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굿에서 본풀이의 기능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자, 그 자료집인 제주도 무속지를 작성,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을 출판했다. 그리하는 한편, 제주도 무속을 종교민속학적 시각에서 체계화하여 『제주도 무속연구』(집문당, 1986)를 써서 내놓는 동시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에 대한 글을 간간히 써 왔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회갑을 맞이하자, 뭔가 하나 정리해야겠다 싶어 당초 관심의 대상이던 신화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라는 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제 고회를 넘기고 보니, 필자가 이제까지 공부해 온 것들을 하나 더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미 『제주도무속연구』를 내놓았지만, 그 동안 간간히 써 온 제주도 무속과 그에 관련된 민속문화에 대한 글들을 모아 묶어 내놓기로 했다. 그것이 이 책이다.

저자가 설명한대로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은 1980년대까지 많은 글들을 쓰고 몇 권의 책으로 정리하다 남은 민속현상이나 민속문화 관련

된 글들의 모음집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했다시피, 이 책은 앞으로 후학들이 해야할 과제 예를 들면, 제주무속의 종합적 고찰과 함께, 각론으로 들어가 제주의 무속춤, 제주도 무속 음악, 제주도의 놀이굿, 제주도 큰굿의 기메·전지 등 음악·미술·연극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무가 속의 제주 방언 사용의 범칙성을 체계화하려 한 점도 앞으로 큰굿의 자료 정리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이 책은 전에 읽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으며, 후학들이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연구과제, 신굿이나 무혼굿의 보다 깊은 연구, 화반으로 기록된 제주도 걸궁의 체계적인 연구 등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으로 제주의 민속학 연구, 무속이나 신화 연구가 학문연구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미학연구, 제주인 문화적 상상력에까지 시야를 넓혀, 제주인의 원형을 찾고, 제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형상화하는 예술작업 등을 통하여 학문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어 민속의 대중화까지도 이루어지도록 쉽고 재미있는 민속연구가 되었으면 한다.